

시민들의 꿈을 안고 함께 가는 의회상 실천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의회'를 가치로 내걸고 전주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한 해도 힘 없이 달려왔다. 지난 1년간 전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전주시의회의 2017년 의정활동을 간추려 본다.

▲민생 조례 등 210건 처리

전주시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정례회(2회)와 임시회(8회) 등 10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87건, 동의안 80건, 결의안 1건 등 총 2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28건으로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노숙인, 성매매 피해자, 저소득 보호관할 대상자 등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례를 직접 발의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지방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지역 영세상인 보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북한 핵실험 규탄 성명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장 현안에 시민 목소리 대변

의원들은 출생정책, 도시정비사업, 첫마중길 교통정책 문제,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대책,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시민체육시설 특혜사용, 행정구역 개편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시정질문(39건)과 5분 자유발언(77건)을 통해 시장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내실 있고 실효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 시장의 위법·부당 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기도 했다.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충실

시의회는 또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시장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충실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의 형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예산집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점검했다. 특히, 내실 있고 실효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 시장의 위법·부당 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기도 했다.

▲의원 연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시의회는 조례연구회, 의정포럼연구회, 제도개선연구회, 비전연구회 등 4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다양한 사회 문제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등을 20여 차례 실시하여 의원들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써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장애인 이동권 활성화,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출생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열어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 소통 강화

시의회는 또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 정책자문단과 의정사이버정책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역동적인 소통 의정을 펼쳐왔다. 이 외에도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본회의 생중계 및 방청 등을 통해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주민이 주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앞장... 김명지 의장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사진)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어느 해보다 큰 때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선진의회를 구현하는 데 부단히 노력해왔다. 특히, 새 바람의 희망이 크고 깊었던 변화의 길목에서 가장 민중적이고 예민하게 대응하며 시민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앞장섰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의회로서 시민의 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 힘써왔다. 김 의장은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기대되는 가운데,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시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 구현... 송상준 부의장

송상준 전주시의회 부의장(사진)은 시민의 소중한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어왔다.



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 송 부의장은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생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시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상임위 의정 성과

운영위 -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회기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히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화 위원장



박형애 부위원장

행정위 -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 충실

행정위원회는 전주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 홍보, 감사, 예산, 기획, 인사,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시·견제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명근 위원장



백경류 부위원장

복지환경위 - 복지 취약계층 자립 촉진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주시민에게 생산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경, 건강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양명환 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문화경제위 - 4차산업혁명 생태기반 조성 주력

문화경제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산업,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산업 분야를 육성하며 4차 산업혁명의 생태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강점인 탄소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이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기동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도시건설위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앞장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시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도시 기반 확충 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병호 위원장



고미희 부위원장

예결특위 - 재정 효율성 극대화 주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진욱 위원장



김은영 부위원장

행감특위 - 불합리 행정 체계 개선

전주시의회가 지난 10월 13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김현덕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순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현덕 위원장



김순정 부위원장